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GLOBAL TOP 10 CITY INCHEON 세계 10대 도시 인천
		배포일자	2024년 7월 8일(월) 총 3매	
담당 부서	자연재난과	담 당 자	• 담당팀장 • 담당자	이양숙 ☎440-3871 천주현 ☎440-387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소상공인 반값택배 참여업체 모집

- ‘업체방문 픽업서비스’ 7월부터 전면 시행, ‘반값택배 서비스’ 10월 1일 예정 -

인천광역시가 소상공인의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의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인천시는 제1회 시 추경을 통해 3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7월 1일부터 기존 1,500개 업체로 한정했던 ‘업체방문 픽업서비스’를 37만 인천시 전체 소상공인(강화·옹진제외)으로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업체방문 픽업서비스’는 인천시가 지정한 집화업체가 업체를 방문해 물품을 픽업해서 택배사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택배 발송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물량에 상관없이 누구나 시장평균 배송료 대비 약 25% 저렴한 2,500원부터 전국으로 발송할 수 있고, 인천·서울·부천 지역에 한 해 3,500원에 당일배송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오는 10월 1일부터는 ‘반값택배 서비스’를 추가 지원한다.

‘반값택배’는 상품을 발송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이 물건을 가지고 직접 인천도시철도 1.2호선 역사 내에 설치된 집화센터에 입고하면 지하철로 서브집화센터로 이동된 후 택배사로 전달되는 방식이다. ‘반값택배’는 일반배송 기준 1,500원부터 업체별로 연간 120건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지난달 28일 시 제1회 추경 예산 확정 후, 인천시는 1톤 전기화물차 19대를 추가 확보하고, 지하철역 집화센터 설치를 위한 설계 및 택배사 공모 절차에 들어가는 등 사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을수 시 해양항공국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소비패턴의 확산으로 온라인 쇼핑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 했지만, 대기업의 온·오프라인 시장 진출 확대와 해외 직구 플랫폼의 저가 공세로 인해 매출 물량이 적은 소상공인들은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며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 사업은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기 어려운 지하철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정책으로 성공적으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가를 원하는 인천시 소상공인은 누구나 고객센터(1544-6213) 또는 큐알(QR) 코드로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반값택배 참가신청 큐알코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

인천의 **71** 대항민국의 미래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참여업체 모집



이용금액	구 분	구 격	업체방문 픽업서비스	반값택배 서비스
일반배송		5kg, 100cm 이하	2,500원	1,500원
		10kg, 120cm 이하	3,500원	2,500원
당일배송		5kg, 100cm 이하	3,500원	2,500원
신선배송		5kg, 100cm 이하	3,500원	2,500원

모집대상 인천시 소상공인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모집기간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시기 업체방문 픽업서비스 (2024년 7월 1일 부터)
반값택배 서비스 (2024년 10월 1일 예정)

신청방법 QR코드 접속
(온라인신청서 작성)



관련문의 투데이택배 고객센터 ☎ 1544-6213
인천광역시 물류정책과 ☎ 032) 440-3872